

자동차

Car

에쿠스·산타페도 깎아줍니다

국산·수입차 업계 설연휴 다양한 마케팅



수입차 시장 점유율 시상 첫 5% 넘어서

지난달 수입 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신규등록된 수입차는 4만3000여대로, 전체 승용차 판매대수 8만2천여대의 5.3%에 달했다. 수입차 점유율이 5%를 넘어선 것은 지난 1987년



수입차가 본격 수입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국산차는 93만5천600대, 수입차는 40만1500대가 각각 판매돼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이 4.2%에 달했다. 또 국산차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비해 판매량이 2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입차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설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업계가 각종 할인 및 할부 프로그램 출시하는 등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섰다.

특히 이번 설에는 현대차가 다양한 판촉행사를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가운데 수입 자동차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 잡기에 한창이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후차량 급증 추세로 인해 올해 소비자들의 자동차 교체가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국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1천589만5천300대 가운데 25.3%(401만5천200대)가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으로 나타나 자동차업계의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산차 업체 엇갈린 판촉 행보=국산차 업체들은 설을 앞두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1월 판매실적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문 현대·기아차는 할인판매 폭을 확대한 반면 1월에 30%대 성장세를 보인 GM대우, 쌍용자동차는 할인 폭을 줄이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모든 차종 구입 고객에게 10만원의 귀성차량용 기름값을 지원한다. 또 전차종 구입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카메라·복합기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을 주며, 그동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던 에쿠스·산타페도 각각 100만원, 50만원 깎아준다.

이와 함께 2월 쏘나타 출고고객을 대상으로 10명(5쌍)에게는 250만원 상당의 유럽·미주 여행권, 20명(10쌍)에게는 80만원 상당의 아시아 여행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아자동차는 소형차 모닝에 대해 1월부터 2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30만원을 깎아준다. 또 기아차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전원에게 설날 세뱃돈 봉투 세트(5매)를 증정하고, 뉴오피러스 구매고객 전원에게 골프나 여성용 화장품 세트 등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는 모든 차종 구입 고객에게 10만원의 귀성차량용 기름값을 지원한다. 또 전차종 구입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카메라·복합기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을 주며, 그동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던 에쿠스·산타페도 각각 100만원, 50만원 깎아준다.

이와 함께 2월 쏘나타 출고고객을 대상으로 10명(5쌍)에게는 250만원 상당의 유럽·미주 여행권, 20명(10쌍)에게는 80만원 상당의 아시아 여행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아자동차는 소형차 모닝에 대해 1월부터 2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30만원을 깎아준다. 또 기아차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전원에게 설날 세뱃돈 봉투 세트(5매)를 증정하고, 뉴오피러스 구매고객 전원에게 골프나 여성용 화장품 세트 등을 제공한다.

◇수입차 업체 마케팅 다양화=수입차 업계도 할인 판매, 신차구입시 세금 지원, 무상정비 서비스 등을 내걸고 '설 특수' 잡기에 나섰다.

BMW는 2월 한 달간 2006년식 5시리즈 및 7시리즈와 X3모델을 구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를 지원해준다. 또 오는 16일까지 전국 주요 BMW 서비스센터에서 설맞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BMW는 이달 말까지 미니 쿠퍼S 모델을 구입하는 고객 중 선착순 50명에게는 애플사의 mp3 플레이어와 하이파이 스피커를 준다.

벤츠는 지난 5일부터 주요 부품 및 소모품 가격을 최대 25%까지 파격 인하했다. 품목별로는 에어컨필터, 오일필터, 연료필터, 배터리 등 주요 소모품 7종(180여개)과 범퍼, 엔진오일, 도어, 펜더, 사이드미러 등 차체 부품 6종(431개)이 포함된다. 또 고객들이 자주 교환하는 소모품과 주요 부품 3천여개는 최대 13%까지 가격을 낮춘다.

제너럴은 전차종에 DMB내비게이션을 달아준다. 랜드로버는 디스커버리3 디젤 출시를 기념해 분당(8일)·서울(9~11일)에서 시승행사를 갖는다.

GM은 캐딜락·사브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등록·취득세를 지원하며, 차종별로 8%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캐딜락의 SUV인 SRX 4.6의 경우 등록·취득세 지원에 추가 8% 할인까지 받으면 1천330만원을 할인받는 셈이 된다.

아우디는 3월까지 A4 1.8T는 등록·취득세, A6 2.4는 등록세 지원과 DMB 내비게이션 무료 장착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한다.

인피니티는 2006년형 M시리즈의 경우 등록·취득세를 지원해주고, 후방주차센서를 무료 장착해주는 등 신형 G35 세단을 제외한 모든 차종에 대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과 주요 부품 3천여개는 최대 13%까지 가격을 낮춘다.

제너럴은 전차종에 DMB내비게이션을 달아준다. 랜드로버는 디스커버리3 디젤 출시를 기념해 분당(8일)·서울(9~11일)에서 시승행사를 갖는다.

GM은 캐딜락·사브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등록·취득세를 지원하며, 차종별로 8%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캐딜락의 SUV인 SRX 4.6의 경우 등록·취득세 지원에 추가 8% 할인까지 받으면 1천330만원을 할인받는 셈이 된다.

아우디는 3월까지 A4 1.8T는 등록·취득세, A6 2.4는 등록세 지원과 DMB 내비게이션 무료 장착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한다.

인피니티는 2006년형 M시리즈의 경우 등록·취득세를 지원해주고, 후방주차센서를 무료 장착해주는 등 신형 G35 세단을 제외한 모든 차종에 대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 전차종 구입 고객 기름값 지원

미주 여행권·세뱃돈·화장품 증정도

캐딜락 SRX4.6 최고 1,330만원 할인

연료 부족 경고등 들어오면

“연료부족 경고등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국내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는 운행중 연료부족 경고등이 들어오면 크게 당황한다. 금방이라도 차량 시동이 꺼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보운전자들은 연료 경고등이 들어오면 주유소를 찾겠다는 급한 마음에 무리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차질 사고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경고등이 켜진 뒤 얼마나 더 주행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행할 수 있다.

9일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경고등이 켜지더라도 평균 7~10ℓ의 잔량이 있어 40~50km 이상을 추가로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업체나 차종, 운전자의 운전습관, 짐의 무게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운전하세요 40~50km는 거뜬히 더 갈수 있어

만큼 이 수치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아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 로체는 남은 연료가 8ℓ 일 경우 경고등이 들어온다. 연비(10.9km/ℓ)를 감안하면 주행가능거리가 87.2km에 달하는 것이다. 오피러스(9km/ℓ)는 10.5ℓ에서 경고등이 들어와 94.5km를 주행할 수 있고, 스포티지(12.6km/ℓ)는 8.5ℓ에서 경고등이 들어와 107.1km를 달릴 수 있다.

GM대우의 중형 세단 토스카는 연료가 7.1ℓ 정도 남아있을 때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다. 경고등 켜진 이후에는 76.7km 주행이 가능하다. 윈스톱은 연료가 8ℓ 남았을 때 경고등이 들어

오며 연비(14.0km/ℓ)를 감안하면 112km 주행이 가능하다.

쌍용차의 경우 대부분 잔여연료량이 9.5ℓ 일 때 연료경고등에 불이 들어온다. 이를 감안하면 연비 11.7km/ℓ의 렉스턴III(RX7)는 약 111.15km를, 연비 12.8km/ℓ의 카이런 2WD(2.0수동)는 122km, 연비 13.1km/ℓ의 액티언 2WD(2.0수동)는 124km를 각각 더 달릴 수 있다.

르노삼성차는 SM3가 잔여연료량이 9ℓ 일때, SM5와 SM7은 잔여연료량이 11ℓ 일때 각각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다. 이를 감안하면 SM3는 110~120km, SM5와 SM7은 100~110km를 주행할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 팀장이 직접 쓴
등들의 비밀노트

평범한 우리 아이도 1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책!
잘 것 다 자고, 고사시만 공부한 1등은 이 책에 등장하지 않는다!
더신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1등들의 진짜 공부법이 낱알이 수록됐다.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 팀장이 직접 쓴 1등들의 성공 비결! 공부 노하우!
이 책만 평범한 자녀를 위한 성적 올리기 비법이 가득하다.
부모님이 먼저 읽고, 자녀의 학습동기를 위해 선물하십시오!
* 전국 유명서점에서 할인판매중

2007년 입시정보
핵심 보강
개정판 출시!

능력에 걸맞게 받는 공부방법을 익힌다. 이 책은 자녀들의 공부방법을 통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공부법, 공부 습관, 공부 자세 등을 알려준다. 특히 1등들의 공부 습관을 통해 공부의 비결을 알려준다. **최정민**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부모의 바람대로 공부하게 만드는 책! 1등이 되고 싶은 자녀를 위해 공부비결을 알려준다. 1등 공부법, 공부 습관, 공부 자세 등을 알려준다. 특히 1등들의 공부 습관을 통해 공부의 비결을 알려준다. **최정민**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gitan.co.kr
문의 : 02586-1007(내)
Fax : 02586-2337

일본, 중국, 대만, 태국에 판권 수출!
대형서점 어학부문 베스트셀러!

영어의 기초, 기적처럼 잡아라~!

영어공부 비밀 계획만 세우고, 시험도 못볼까? 고민이라면 이 책을 보세요!
기적처럼 영어를 공부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영어공부하는 방법, 공부 습관, 공부 자세 등을 알려줍니다. 특히 1등들의 공부 습관을 통해 공부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최정민**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1등 공부법, 공부 습관, 공부 자세 등을 알려준다. 특히 1등들의 공부 습관을 통해 공부의 비결을 알려준다. **최정민**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 **김영희** (조선일보 기자)

G기탄출판
문의 : 02586-1007(내)
Fax : 02586-2337